

부부관계의 주관성 연구

김분한* · 이희영** · 정영미** · 이은영*** · 김흥규****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부부는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란 두 남녀가 결혼을 통하여 맺게 된 비혈연적이지만 가장 밀접하고 지속성 있는 관계로서 가족의 기본적인 하부 체계이며, 이 관계가 원만할 때 가족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안녕에 기여할 수 있다.

Coombs(1991)는 가족 연구를 고찰한 결과 결혼을 한 남녀가 미혼자 보다 행복하며 적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보고하였다. 즉, 부부는 동료 의식, 친밀한 관계, 정서적 만족 그리고 지지를 제공하여 신체 정서적 병리학적 문제에 대항할 수 있는 완충 작용을 한다(Ross, 2000). 그러나 가족 구성원 전체의 건강과 안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부관계는 현대 사회의 가족 구조적 형태와 기능의 변화와 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부부 역할 변화 등 내·외적 영향 요인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부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결혼 만족, 결혼 조정, 결혼의 안정성, 그리고 결혼의 질을 주로 연구하였고 성공적인 결혼을 예측하기 위한 예측요인들을

규명해 왔다. 그러나 부부관계에 대한 각 대상자의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결혼만족, 조정, 안정성, 질 등을 위한 부부 중재 프로그램 등은 지금까지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나(Christensen & Heavey, 1999; Johnson & Lyn, 1998), 부부관계의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에 따른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없었다.

부부관계에서의 만족, 조정, 안정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 대상자의 관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즉, 부부란 무엇인가 등의 주관적인 개개인의 생각과 인식의 특성을 파악하여 부부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관점으로부터 주관적인 현상의 차원들을 이해하며, 그러한 차원들이 서로 어떻게 다르며, 또한 공통적인 견해를 갖는 사람들의 특성을 찾아낼 수 있는 Q 방법론을 통하여(김흥규, 1992), 부부관계에 본질적인 개념과 그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기존 연구에서 밝힐 수 없었던 부부 관계의 주관성의 구조를 확인하여 부부를 이해하고 대상자의 요구에 적절한 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강사

*** 진주보건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 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부부관계의 본질을 파악하고 유형을 기술하고 설명하며, 부부 중재 도구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문헌 고찰

현대의 한국가족은 핵가족화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가족내의 핵심적인 관계성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가족의 안정성 또한 부부관계에 크게 의존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부부관계는 가족 전체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건강문제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에 있어서 결혼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완충역할을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정신, 신체적 건강에 기여하며 만성적인 긴장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장기간의 사회적 지지원으로 작용한다(Berkman & Syme, 1979). 결혼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는 결혼한 사람들의 높은 안녕상태와 관련있는 사회적지지, 소속감, 애착이 높기 때문이 아닌가로 생각되고 있다(House, Landis & Umberson, 1988).

부부관계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며 인간상호작용 측면에서 이러한 양면성은 강화되게 되며 부정적 측면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쉽게 자신들의 관계를 종결시키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 행동이 상호 교환되고 불화의 근원을 강화시키게 된다. 전형적으로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Horwitz, McLaughlin & White, 1997).

미망인그룹에서 건강관리에 드는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한 대상자에 있어서 결혼의 조화는 건강과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ringersn, Maciejewski & Rosenheck, 2000). Glenn(1990)은 결혼의 질이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안녕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Brecht, Dracup, Moser와 Riegel(1994)도 심장질환자들이 결혼의 질의 영향으로 심리사회적으로 병에 적응한다고 함으로 배우자가 만성질환인 경우 가족의 기능은 결혼의 질과 관련되며, 이러한 가족에게서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ates, Bensley, Lailonde, Lewis & Woods, 1995). Mcleod와 Eckberg(1993)의 연구에

서도 우울환자와 그 배우자의 경우 우울하지 않은 부부에서보다 결혼의 질을 낮게 보고하고 있어 부부간의 결혼의 질이 건강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부들에게 중재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메타분석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Christensen & Heavey, 1999; Jonhson & Lyn, 1998). 그러나 이러한 중재 프로그램이 모든 대상자들에게 일률적인 방법으로 제공되기 보다는 부부관계의 유형을 파악하여 각각 요구와 특성에 맞는 중재를 제공할 때 더 효과적이다(Fowers, Montel & Olson, 1996).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부부간 유형을 보면 Fitzpatrick(1988)은 권력과 갈등전략의 이용, 자기표현, 의사소통, 적응경험에 따라 부부유형을 전통형(traditionals), 독립형(independents), 분리형(separates), 혼합형(mixed)으로 분리하였다. 여기에서의 전통형은 결혼의 안정성, 동지애와 공유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노출시키는 형태이며, 독립형은 동지애와 공유를 강조하지만 전통형보다는 공유정도가 떨어지며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다. 분리형은 부부에 대한 전통적 특성을 가지 있게 보지만 자신의 독립성을 희생하지 않고 자율성과 상호의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태이다. 혼합형은 서로 다른 유형이 섞여 있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Honeycutt(1999)의 연구에서도 갈등회피, 결혼에 대한 전통적 관점, 공유정도에 따라 부부유형을 전통형(traditionals), 독립형(independents), 분리형(separates)으로 구분하였다. Fowers와 Olson(1992)은 관계패턴에 따라 결혼전의 부부를 대상으로 유형을 파악하였는데 활성화형(vitalized), 조화형(harmonious), 전통형(traditional), 충돌형(conflicted)으로 나누었다. 활성화형은 전체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애정로나 성적으로 만족감이 높고 평등한 역할을 영위하는 유형이고, 조화형은 관계의 질이 높은 유형으로 상대방에 대해 비교적 만족감을 경험하지만 결혼에 대해 약간은 비현실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며, 전통형은 어느정도 상호작용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형이지만 결혼에 대한 현실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이나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공통의 견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충돌형은 전반적으로 불화를 보여주고 있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 방법

-4	-3	-2	-1	0	1	2	3	4
2장	3장	4장	5장	5장	5장	4장	3장	2장

<그림 1> 표본의 분포도

1. Q-표본(Q-sample)의 표집방법

Q 표본의 표집방법은 Q 모집단의 구성과 Q 표본을 선정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Q 모집단의 선정은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부부인식과 관련된 진술문을 추출하기위해 대학생, 미혼남녀, 기혼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개방형 질문지, 참고문헌, 선행연구를 참고하는 방법을 이용하였고 이를 통해 부부인식에 대한 진술문이 210개 추출되었다.

이렇게해서 나온 부부인식에 관한 진술문은 범주 31개로 나타났으며 5차에 걸친 범주화 작업과 Q 방법론 전공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아 의미가 같은 내용의 중복된 문항을 삭제하고, 차원이 다른 두가지 이상의 내용이 같은 진술문속에 포함된 것은 두 개 이상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최종적으로 33개의 Q표본 진술문을 선정하였다<표 1>.

표본의 분포도는 부부인식에 관한 33개의 진술문을 강한 긍정(+4)부터 강한 부정(-4)까지 9점척도상에 분류하도록 하는데 이는 대상자의 의견이 정상분포상에 있다는 전제하에 강제분포하도록 배열하기 위해서이다<그림 1>.

2. P-표본(P-sample)의 표집방법

P표본의 선정은 연구될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다고 대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김홍규, 1992), Q 방법론은 개인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내의 의미성이나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것이므로 P표본의 수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은 28세에서 60세까지로 결혼년수는 1년에서 31년까지 다양하게 구성하였으며, 총 30명이었다.

3. Q - 표본 분류과정(Q-sorting) 및 방법

P-sample은 각각 33개의 Q-sample로 이루어진 Q-set를 가장 긍정에서부터 가장 부정까지 강제 정규분

포를 하게하였으며, 양극에 놓여있는 두 개씩의 진술문(+4와 -4) 4개에 대하여는 진술문 하나하나에 대하여 면담을 통하여 부부인식의 선택이유를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부가적으로 수집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P 표본으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한 Q-sorting이 끝난 뒤에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였으며, 코딩방법은 Q-카드를 1점에서 9점까지 점수화하여 가장 부정하는 경우에 1점, 중립인 경우에 5점, 가장 긍정하는 경우에 9점을 부여하여 점수화하였다.

자료분석은 PC-QUAN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Q 요인분석은 주인자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수의 결정을 위해 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의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된 결과중 이상적이라고 판단된 유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표 1> Q-진술문(33개)

- 01 검은머리 파뿌리 되도록 사는 것이다.
- 02 낮에 싸우는 부부는 있어도 밤에 불끄고 싸우는 부부는 없다.
- 03 결혼후에 속았다는 감정을 자주 느낀다.
- 04 서로 상대방의 가치관에 따라 주기를 기대한다.
- 05 외도를 할 수 있다.
- 06 성적화합을 주도하는 매력있는 관계이다.
- 07 나의 배우자는 자기자신밖에 모른다.
- 08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 09 같이 살아도 외로운 존재이다.
- 10 배우자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
- 11 서로 들어가며 의지할 곳은 남편(아내)밖에 없다.
- 12 부부싸움 원인의 대부분은 시댁문제이다.
- 13 더 이상 성격이 맞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
- 14 부부간에도 비밀은 있다.
- 15 사는데 사랑이 전부가 아니다
- 16 남편(아내)는 내것이다.
- 17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 18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 19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가 있는 관계이다.

<표 1> Q-진술문(33개)(계속)

- 20 살면서 서로 닳아가고 돌이 하나가 되는 일심동체이다.
- 21 어느 정도는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관계이다.
- 22 서로 숨김없이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관계이다.
- 23 일생에서 한번밖에 맺어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이다.
- 24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관계가 될 수 있고 서로에 대해 잘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다.
- 25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도와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 26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 27 결혼에 실패하면 인생에 있어 완전한 실패이다.
- 28 원수지간으로 변할 수 있다.
- 29 정 때문에 산다.
- 30 서로 맞추어 사는 과정이다.
- 31 서로 비밀이 없다.
- 32 주고나면 꼭 받아야 하는 사이이다.
- 33 별 볼일없는 사이이다.

IV. 연구 결과

P-표본의 유형별 분포와 인자가중치는 <표 2>와 같다. 제 1형은 12명, 제 2유형은 10명, 제 3유형은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유형내에서의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의 전형적 혹은 이상적인 사람으로 그 유형을 대표한다.

부부인식에 대한 결과해석은 각 유형에 대한 33개의 진술문중 강한 긍정을 보이는 항목(표준점수>+1)과 강한 부정을 보이는 항목(표준점수<-1)을 중심으로 해석하였고, 각 유형의 특성을 보다 분명히 밝혀내기 위해 개별 진술문에 대한 특정 유형의 표준점수와 개별 진술문에 대한 다른 유형과의 차이가 두드러진 항목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각 유형에서 인자 가중치가 1.00이상인 전형적

<표 2> P-표본의 유형별 분포와 인자가중치

유형	번호	성별	연령	결혼년수	결혼형태	학력	직업	종교	자녀수	가족	인자가중치
I	15	남	32	5	연애	대졸	사무직	기타	2	대	4.4266
	14	여	29	5	연애	대학원	사무직	천주교	2	대	2.3581
	28	여	42	15	연애	대학원	전문직	기독교	2	핵	2.0435
	24	남	28	2	연애	대졸	학생	천주교	1	대	1.6087
	8	남	37	10	연애	대졸	사무직	기독교	3	핵	1.4282
	22	여	28	1	연애	대졸	학생	기타	0	핵	1.2118
	18	여	29	1	연애	대학원	전문직	기타	0	핵	1.2589
	29	여	33	3	연애	대졸	전문직	기독교	1	핵	1.1965
	6	남	37	9	중매	대졸	자영업	기타	3	대	1.1955
	26	남	31	4	연애	대졸	사무직	무	1	핵	1.1792
	25	남	48	14	중매	대학원		불교	3	핵	1.1123
	27	여	50	24	중매	대학원	전문직	기독교	2	핵	1.0732
II	1	여	29	4	연애	대학원졸	학생	기독교	0	핵	2.2734
	4	여	41	14	중매	대졸	무	기타	2	핵	1.7892
	23	남	28	1	연애	대졸	학생	천주교	0	핵	1.6020
	19	여	52	31	연애	중졸	무	불교	4	핵	1.3008
	11	남	42	14	중매	대학원	전문직	기독교	3	핵	1.2275
	9	여	39	14	중매	대졸	무	기독교	3	핵	0.9175
	30	여	35	9	연애	대졸	무	무	2	핵	0.8498
	16	여	29	1	연애	대학원	학생	기독교	0	대	0.8238
10	여	46	10	중매	대학원졸	전문직	기독교	3	핵	0.7820	
17	여	34	2	연애	대학원	전문직	천주교	1	핵	0.7451	
III	5	여	36	9	중매	고졸	무	불교	3	대	2.3936
	21	여	47	4	중매	대졸	연구원	천주교	1	핵	1.9434
	2	여	59	35	연애	고졸	무	불교	3	핵	1.9237
	20	남	59	31	연애	고졸	임대업	기타	4	핵	1.5033
	7	여	33	9	연애	고졸	무	기독교	3	핵	1.4335
	3	남	60	35	연애	고졸	무	불교	3	핵	1.2145
	12	여	40	14	중매	대학원	전문직	불교	3	핵	1.0088
13	여	45	20	연애	대학원	전문직	천주교	2	핵	0.9484	

인 사람을 중심으로 Q-분류과정(Q-sorting) 당시 관찰 및 면담한 내용과 양극단에 선택한 진술문들에 대한 의견들을 근거로 각 유형의 특성을 해석하였다.

1) 제 1유형 : 일심동체형

제 1유형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강한 결속이 있으면서 몸과 마음이 하나로 통합하려고 인지를 하여 일심동체(一心同體)형 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서는 서로 다른 남녀가 부부가 되면서 둘이 하나가 되며, 일생에서 단 한번밖에 맺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인지하였다.

강한 긍정적 동의와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항목을 통해 제 1유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3 참조>, 부부에 대한 인식은 살면서 서로 닳아가고 둘이 하나가 되는 일심동체이며, 서로 숨김없이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관계이며,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도와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점이다.

특히 다른 유형에 비해 ‘살면서 서로 닳아가고 둘이 하나가 되는 일심동체이다’ 와 ‘일생에서 한번밖에 맺어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이다’ 항목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는데, 이 유형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 서로의 인생의 합일점이 되어야한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서로가 맞춰가면서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되어야한다고 선택이유를 진술하였다. 부정적 동의를 보인 ‘배우자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와 ‘어느 정도는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관계이다’ 항목이 다른 유형에 비해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는데 부부란 사

<표 3> 제 1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문항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20	살면서 서로 닳아가고 둘이 하나가 되는 일심동체이다.	1.83
22	서로 숨김없이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관계이다.	1.71
25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도와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1.53
19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가 있는 관계이다.	1.43
30	서로 맞추어 사는 과정이다.	1.36
23	일생에서 한번밖에 맺어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이다.	1.28
3	결혼후에 속았다는 감정을 자주 느낀다.	-1.01
10	배우자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	-1.21
18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1.23
7	나의 배우자는 자기자신밖에 모른다.	-1.27
21	어느 정도는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관계이다.	-1.31
5	외도를 할 수 있다.	-1.38
33	별 불일없는 사이이다.	-1.79

랑과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관계이고 자녀보다는 부부가 중심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진술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제 2유형 : 동반자형

제 2유형은 부부를 한 길을 같이 걷는, 즉 서로 도와주고 보완해주는 친구처럼 지내는 유형으로 부부관계를 상하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로 인지하여 이 유형을 동반자형이라고 명명하였다.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항목중 이 유형의 특성을 대표하는 항목을 살펴보면<표 4 참조>,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도와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관계가 될 수 있고 서로에 대해 잘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다’, ‘서로 상대방의 가치관에 따라 주기를 기대한다’ 등이었다.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은 ‘서로 비밀이 없다’, ‘주고나면 꼭 받아야 하는 사이이다’, ‘결혼에 실패하면 인생에 있어 완전한 실패이다’, ‘부부싸움 원인의 대부분은 시댁문제이다’,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등 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선택이유를 살펴보면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만났으므로 서로 맞추어가고 부족한 것을 보완해주는 것

<표 4> 제 2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문항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25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도와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2.03
30	서로 맞추어 사는 과정이다.	1.77
24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관계가 될 수 있고 서로에 대해 잘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다.	1.29
20	살면서 서로 닳아가고 둘이 하나가 되는 일심동체이다.	1.29
4	서로 상대방의 가치관에 따라 주기를 기대한다.	1.28
19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가 있는 관계이다.	1.16
31	서로 비밀이 없다.	-1.00
32	주고나면 꼭 받아야 하는 사이이다.	-1.00
27	결혼에 실패하면 인생에 있어 완전한 실패이다.	-1.07
7	나의 배우자는 자기자신밖에 모른다.	-1.12
12	부부싸움 원인의 대부분은 시댁문제이다.	-1.14
5	외도를 할 수 있다.	-1.19
17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1.27
18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1.53
33	별불일없는 사이이다.	-1.72

이 중요하며, 오래 살아서 서로를 아는 것 같지만 가장 모르는 것이 부부라고 생각하였고 개개인의 가치관은 존중되어야한다고 진술하여 이 유형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부부는 일심동체(一心同體)보다는 이심이체(異心異體)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부부관계를 유지하기위해서는 서로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도록 노력해야하고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사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결혼생활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결혼의 실패가 곧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부부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이해하고 밀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하관계란 있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제 3유형 : 순응형

제 3유형은 부부관계를 부부가 의지할 곳은 배우자밖에 없고 사랑보다는 정으로 살며, 결혼을 선택보다는 운명이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유형으로써 순응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제 3유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5참조>,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으로 '서로 늙어가며 의지할 곳은 남편(아내)밖에 없다', '검은머리 파뿌리 되도록 사는 것이다', '정 때문에 산다'가 있었고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으로는 '결혼후에 속았다는 감정을 자주

<표 5> 제 3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문항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11	서로 늙어가며 의지할 곳은 남편(아내)밖에 없다.	1.72
20	살면서 서로 닳아가고 돌이 하나가 되는 일심동체이다.	1.56
1	검은머리 파뿌리 되도록 사는 것이다.	1.53
29	정 때문에 산다.	1.33
19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가 있는 관계이다.	1.29
25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도와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1.25
23	일생에서 한번밖에 맺어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이다.	1.16
22	서로 숨김없이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관계이다.	1.11
13	더 이상 성격이 맞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	-1.04
7	나의 배우자는 자기자신밖에 모른다.	-1.13
33	별볼일없는 사이이다.	-1.46
5	외도를 할 수 있다.	-1.71
3	결혼후에 속았다는 감정을 자주 느낀다.	-1.75

느낀다'항목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선택이유를 살펴보면 자식도, 형제도 소용없고 부부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면서 보니 사랑보다는 정으로 산다고 하였고 싫으나 좋으나 부부는 백년해로해야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서구의 부부관계와는 달리 정을 중시하는 한국적 부부관계를 설명한 것으로서 부부란 수십년을 같이 사는 사람들이므로 사랑이라는 정서보다는 미운정 고운정이 포함된 정(情)이라는 정서가 부부간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한 번 결혼을 했으면 좋건 싫건간에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기 때문에 서로 오래 살수 있도록 부부가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V. 논 의

현재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가족은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인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은 아이들에 있어서 사회화가 되도록 하는 인자이므로 그 성장발달을 통하여 개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Koerner & Fitzpatrick, 1997). 이러한 가족의 중심은 부부에 있기 때문에 부부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가족 환경을 형성하고, 가족 중 한 일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 구조 및 기능의 변화가 오며, 부부간의 각 유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으로써 사회적 지지체계의 접근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부의 서로 다른 유형을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가족건강의 핵심 구성인자로서의 부부에 초점을 두고 부부간호중재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써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 유형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결과에서 부부관계 인식은 일심동체형, 동반자형, 순응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제 1유형은 일심동체형으로 부부간의 강한 결속을 강조하면서 결혼의 본질은 일심동체이며 이러한 본질을 추구하는 형이라 할 수 있다.

부부관계는 모든 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생활속에서 부부간의 갈등은 당연히 있을 수 있으며 부부간에 거리감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서로에게 소원하게 되지만 이 유형에서 결혼은 일생에서 한번밖에 맺어질 수 없는 특별한 관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식보다는 들의 관계를 중요하게 두기 때문에 부부는 생활의 중심이 된다. 또한 자신을 주장하기 보다 상대방을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화합을 추구하며, 결속을 강하게 유

지하여 삶의 목표나 삶의 의미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갈등의 폭을 서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자기노출, 친밀감, 함께함, 의사소통등이 더 나은 관계를 창출하는 도구라고 지적된바 있다(Noller & Fitzpatrick, 1990)

이 유형에서 결혼의 본질은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본질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중 한쪽은 제 1유형에 속하고 나머지 한쪽이 제 2유형인 동반자 형에 속하는 경우 갈등의 요소를 갖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제 2 유형은 동반자형으로 상호보완성을 강조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동등성을 중시하며 조선시대 삼강오륜의 부위부강(夫爲婦綱)이나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이라는 가부장적 견해에서 볼 수 있는 수직관계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관계형성을 이루고 있다.

동반자라는 개념은 남성은 부양자, 여성은 가사전담자라는 성역할 분업의 경계를 완화시키고 동료처럼 서로 돕는 부부관계를 지칭하는데 사용하고 있다(한경혜, 1994). 핵가족 중심인 형태에서 생활수준은 향상되고, 여가시간이 늘면서 삶에 대한 가치관은 변화하고 따라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부부간의 친밀감이 강조되고 있다. 역할과 시간을 융통성 있게 공유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나가면서 생기있는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유형에서는 각자가 어느 정도의 비밀을 유지해 나가면서 부부간의 고유한 영역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독립성을 인정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주기 바라는 점에서는 갈등의 소지가 보이지만 서로 맞추어 간다는 점에서는 문제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갈등을 해결하고 적응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도 동등성 정도를 많이 가진 부부는 결혼 만족도가 높고 그렇지 않은 경우 만족도가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Gray-Little & Burks, 1983). 그러나 Guilbert, Vac와 Pasley(2000)는 전통적이기보다 평등주의와 같은 성역할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역할 문제에 있어서 배우자와 해결을 보지 못하는 경우 어느 정도 부정적인 측면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결혼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아니라고 보면서 결혼이나 사랑에 절대적 가치를 두기 보다는 공리주의적으로 현실에 충실한 면을 볼 수

있다. 또한 가정생활을 공유하지만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차단되어 있고 자신에 대한 완전한 노출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제 3유형은 순응형으로 사랑으로 결합하여 서로 참여하는 도리를 지켜 평생동안 동고동락을 하는 유형으로 활력은 없고 소극적인 형태이지만 친화성이 있는 부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부부관계의 핵심은 정(情)으로 부부 각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상, 의사소통, 독립성등의 문제에 대해 각각의 견해를 갖게 되지만 이 유형에서는 모든 것을 수용해 나가기 때문에 결혼 후 속았다는 감정을 느끼지도 않고,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 없어도 잘 순응해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부관계에서의 어떠한 사건도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며 따라서 부부관계의 안정성은 높아 질 수 있다고 보아진다. 이 유형에서 부부는 정신적 관계로서 의지하면서 일생을 보내며,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볼 때 30대, 40대, 50-60대가 고루 분포되어 있어 특별히 연령층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유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부부가 같은 부부관계 인식 유형으로 구성되는 경우 같은 가치관으로 인하여 부부갈등이 적을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유형을 갖는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제 2유형과 제 3유형으로 구성된 부부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전통적 가치관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아내가 제 2유형이고 남편이 제 3유형인 경우에는 문화적 영향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부부간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 1유형인 일심동체형과 제 2유형인 동반자형이 결합된 부부의 경우에도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의 소지가 클 수 있다. 제 1유형과 제 3유형인 순응형이 결합된 부부에서는 가치관은 다르지만 갈등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부의 유형을 먼저 사정하고 이 유형의 부부구성에 따라 적절한 갈등중재 방안을 제공함이 필요하다 하겠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부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부부관계 인식을 파악하고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Q 모집단은 153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었고 33개의 Q

표본 진술문을 선정하였다. P표본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30명이었으며 대상자들은 33개의 진술문을 분류하였다. 부부관계 인식에 대해 3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제 1유형은 일심동체형으로 서로 다른 성장배경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강한 결속을 강조하면서 몸과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제 2유형은 동반자형으로 부부의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부부를 상호의존관계나 친구처럼 보는 유형이다. 제 3유형은 순응형으로 부부관계의 핵심인 정(情)을 기반으로 부부는 각각의 배우자에 순응해나가며 항상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들에게 결혼은 선택보다는 운명이나 숙명으로 받아들여진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부부갈등이 있는 대상자에게 이 자료를 기초로 부부 유형을 사정하여 이에 적절한 갈등중재 방안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2) 부부관계 인지 유형에 따른 실제적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3) 부부관계는 상호의존적 측면이 있으므로 코오리엔테이션(co-orientation) 모델을 적용하여 인지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김흥규 (1992). 주관성 연구를 위한 Q방법론의 이해. 간호학 논문집, 6(1).

한경혜 (1994). 동반자적 부부관계 정립을 위한 소고. 94 세계가정의 해 기념 세미나 보고서.

Berkman, L. F., & Syme, S. L. (1979). Social networks, host resistance, and mortality : A nine-year follow-up study of Alameda County resident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9, 186-204.

Brecht, M. L., Dracup, K., Moser, D. K., & Riegel, B. (1994). The relationship of marital quality and psychosocial adjustment to heart disease. Journal of Cardiovascular Nursing, 9(1), 74-85.

Coombs, R. H. (1991). Marital status and personal well-being: A literature review. Family Relations, 40, 97-102.

Eshleman, J. R. (2000). The family. Allyn and Bacon, America.

Fitzpatrick, M. A. (1988). Between husbands and wives : Communication in marriage. Newbury Park, CA : Sage.

Fowers, B. J., & Olson, D. H. (1992). Four types of premarital couples : An empirical typology based on PREPAR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2, 403-413.

Fowers, B. J., Montel, K. H., & Olson, D. H. (1996). Predicting marital success for premarital couple types based on PREPAR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2, 103-119.

Glenn, N. D. (1990). Quantitative research on marital quality in the 1980s :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18-831.

Gray-Little, B., & Burks, N. (1983). Power and satisfaction in marriage : A review and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93, 513-538.

Horwitz, A. V., McLaughlin, Y., & White, H. R. (1997). How the negative and positive aspects of partner relationships affect the mental health of young married peo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9, 124-136.

Honeycutt, J. M. (1999). Typological difference in predicting marital happiness from oral history behaviors and imagined interactions. Communication Monographs, 66, 276-291.

House, J. S., Landis, K. R., &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 540-545.

Kelley, D. L. (1999). Relational Expectancy Fulfillment as an Explanatory Variable for Distinguishing Couple Type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5(3), 420-442.

Koerner, A. F., & Fitzpatrick, M. A. (1997). Family type and conflict : The impact of conversation orientation and conformity orientation on conflict in the family.

Communication studies, 48, 59-75.

- McLeod, J. D., & Eckberg, D. A. (1993). Concordance for depressive disorders and marital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733-746.
- McKenry, P. C. (1994). Families and change. California : Sage.
- Noller, P., & Fitzpatrick, M. A. (1990). Marital communication in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32-843.
- Prigerson, H. G., Maciejewski, P. K., & Rosenheck, R. A. (2000). Preliminary Explorations of the Harmful Interactive Effects of Widowhood and Marital Harmony on Health, Health Service Use, and Health Care Costs. The Gerontologist, 40(3), 349-357.
- Yates, B. C., Bensley, L. S., Lailonde B., Lewis, F. M., & Woods, N. F. (1995). The impact of marital status and quality on family functioning in maternal chronic illnes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6, 437-449.

- Abstract -

Key concept : Marital relationship, Subjectivity

A Subjectivity of Marital Relationship

Kim, Boon-Han · Lee, Hee-Young***

*Jung, Young-Mi***

*Lee, Eun-Young*** · Kim, Heung-Kyu*****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find out the

perception of marital relationship and to understand the typology. The Q-population consisted of 153 statements that were collected and 33 Q-samples were selected. The P-samples for this study were made up of 30 who were married. Each responded to a Q-set of marital relationship according to 9-point scale. The results of Q-sorting were coded and analysed using QUANL PC program.

Typological observations were as follows.

- 1) One in body and spirit type : In type 1, couples had different backgrounds respectively but felt one in body and spirit.
- 2) Companionship type : 2. Couples had not so much a hierarchial as a horizontal relationship. Couples perceived themselves as interdependent and friends.
- 3) Adaptation type : Couples readily adapted themselves to a marital relationship. They only depended on their spouses at times and stressed the relationship. Marriage was accepted as destiny rather than choice.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we suggest: When a marriage is in trouble, that we assess the type of marital relationship in advance and intervene with a proper program. In addition, practical intervention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tailored to the type of subjective perception about the marital rela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edical College, Hanyang University

** Part-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Medical College, Hanyang University

***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Chinju Health College

**** Professor. Communication & Inform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